

# 2022년도 제5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 : 2022. 5. 31.(화) 14:00 ~ 14:40

2. 장소 : 행정관 4층 소회의실(비대면 회의)

3. 참석 현황 : 재적위원 30명 중 참석 25명, 불참 5명

## □ 참석위원(25명)

- 당연직(7명) : 기획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시설관리국장, 재정전략실장 직무대리, 발전기금 상임이사
- 임명·위촉직(18명)
  - 학내위원(8명) : 안OO, 박OO, 김OO, 이OO, 이OO, 김OO, 김OO, 류OO 위원
  - 학외위원(10명) : 김OO, 김OO, 김OO, 박OO, 서OO, 윤OO, 이OO, 이OO, 정OO, 최OO 위원

## □ 불참위원(5명)

- 학생처장, 연구처장, 김OO, 이OO, 이OO 위원
- ※ 배석(4명): 예산과 이OO, 강OO, 기획과장, 회계지원팀장

## 4. 안건

### □ 전차 회의록 보고

- 2022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- 2022년 제4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### □ 보고 안건

- 서울대학교 ERP 도입 사업

□ 심의 안건

- 통합 구매 제도를 활용한 구매 효율화

5. 회의 결과

가. 전차 회의록 보고

□ 2022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김용철 예산과장
- 2022년 제3차 재경위원회(2022. 4. 29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

□ 2022년 제4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김용철 예산과장
- 2022년 제4차 재경위원회(서면심의, 2022. 5. 4. ~ 5. 6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보고 안건

□ 서울대학교 ERP 도입 사업

- 보고자 : 김용진 기획처장
- 안전 요지
  - 업무 효율화 및 대학교육시스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ERP 도입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
- 제시된 의견
  - 연구행정(SRnD)시스템의 ERP 적용 형태가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형태인지 업데이트하는 형태인지, 또한 데이터가 ERP시스템으로 원만하게 이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
    - ↳ 일반행정부문의 ERP 도입을 1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행정(SRnD)시스템으로의 확장 여부 등은 1단계의 성과 및 전체 컨설팅 이후 검토할 예정이며, 데이터 이관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
  - 다른 대학의 ERP 도입 현황에 대한 질의
    - ↳ ERP가 기업에 특화되어 개발·발전되어왔으나 국내외 주요 대학들도

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며, 우리 대학도 ERP 도입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효율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

## 다. 심의 안건

### □ 통합 구매 제도를 활용한 구매 효율화

- 보고자 : 김용진 기획처장
- 안건 요지
  - SNU홀딩스가 대학에 특화된 조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여 MRO 통합구매를 통한 구매를 효율화하고, 이에 따른 「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」 관련 규정 개정 반영
  - 제시된 의견
    - 자회사 규모와 행정 비용 규모에 대한 질의
      - ↳ MRO 전문회사와 합작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2/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임. 경험 있는 파견 인력 활용과 시스템 개발 비용 최소화를 통해 초기 자본금은 약 15억 원 내외, 자체 직원 2명 정도로 운영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
    - 실무적인 관점에서 MRO가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됨
      - ↳ 효율성과 신속성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며, 초기에는 MRO 활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소화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
    - 서울대병원(의과대학)에서 성공적으로 MRO를 출범했기 때문에 의과대학으로부터 학습하면 좋을 것 같으며, 초기에는 플랫폼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신속성과 비용 절감 중 추구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함
    - MRO 전문업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이로운 것은 아닌지, 자회사를 별도로 세우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청
      - ↳ 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는 계약금액에 따라서는 위탁 업체를 매번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매년 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동 사업

추진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상황이 예견되어 계약사무를 일괄 위탁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이 서울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됨

- 자회사 설립이라는 것이 100% 자회사의 의미가 아닌 것인지

↳ 100% 자회사인 SNU홀딩스가 2/3 또는 70~80%의 지분을 가지고 다른 회사와 합작을 하는 것이며, 100% 자회사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통합구매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. 향후 다른 대학의 지분 참여를 통해 회사를 확장하고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- 자회사가 구매대행 형태일 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서 자회사의 수익이 창출되는데, 공급사 형태일 때는 어떤 구조로 이익을 갖게 되는지

↳ 처음 시작은 구매대행 형태로만 운영하여 자회사가 갖게 될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며, 구매대행이 정착되면 공급까지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

- MRO를 통한 구매시 현재 방식처럼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물품을 구매해주는 것인지, 무작위로 구매해주는 것인지, 외국과 같이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학교 내 스토어를 만드는 방식은 고려해보지 않았는지

↳ MRO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물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, 학내 스토어는 구매대행 형태에서 향후 공급사 형태가 되면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
↳ MRO를 통해 구매이력 등이 DB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구매 시점을 예측하여 자동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도 기대됨

- 통합 구매 제도를 통해 연구비 사용 등의 문화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고, 대학이나 주변 벤처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대학의 연구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들에 대한 판로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지

↳ 통합 구매 시스템을 통해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되며, 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상품들을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

○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